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영적인 사람

성경: 사무엘하 23장 13-17절

Tag:

13 또 삼십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달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비임 골짜기에
진 쳤더라

14 그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
들레헴에 있는지라

15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16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17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
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
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삼하
23:13-17)

동네에 신실한 신앙인이 한분 계신다.

그런데 멀리서 걸어오는 딸을 보며 하시는 말씀이 ‘저런, 영혼 없는
걸음걸이 보소, 아유...’ 한다.

나는 속으로 아, 이분 대단히 영적인 분이시구나. 걸음걸이 하나를
보고서도 영혼의 유무를 알아차리시네...

그런데 엄밀히 따진다면, 그분은 한국교회식 신앙의식화가 완료되신
분이시고, 그 따님은 그저 순전하고 평범한 보통 여학생이다.

한 때 우리나라에는 열정적인 신앙운동이 일어났었다. 약간은 불교
적 고행과 그보다는 더 많은 유교적 율법주의 위에 피자 토핑 식으
로 미국식 청교도 정신과 애국애족 정신, 새마을 운동정신(실제로 박
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나안 농군학교는 유명했다), 반공멸공정신, 루
터신학 약간-소금 치듯이, 칼뱅신학 듬뿍-치즈 올리듯, 오순절성령운

동도 듬뿍-소스 올리듯, 조미료처럼 구세군 정신, 성결교 정신이 혼합된 신앙운동이었다.

당연히 요즘 젊은이들은 경험할 수 없는 한국기독교 신앙 정신유산이다.

그러나 오늘 내가 다루고자 하는 영혼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전통적인 신앙 정신유산과는 결이 다르다. 전혀 무관하진 않겠지만, 핵심은 다른데 있다.

우선 사람의 영혼은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자신의 영혼의 정체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정체성과도 다른 영역이다.

자기정체성 또는 자아의식이란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보를 가지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제대로 형성된 정체성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 정체성은 자신의 노력 여하나 경험 등에 의해서 수정되기도하고 심지어 부정적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곧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성경에 의하면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인식은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지고, 거듭남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

사람마다 영혼은 있지만, 그 영혼에 대한 인식은 그 영혼이 살았냐 죽었냐로 구별된다. 영혼이라는 정체가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신성은 있지만 신격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소멸되기도 한다. 영혼의 태어남과 소멸에 관한 주

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태어나면서 부터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지, 태어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죽게 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오직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할 때 비로소 그 영혼이 다시금 살아난다고 보면 된다.

거듭났다는 표현은 두 번째 태어났다는 의미이니까, 이미 육체적 탄생과 더불어 이미 영혼도 태어났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무튼 그래서 영혼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에 대한 자기 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영적인 감각이 곧바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양분을 맘껏 빨아들이면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서서히 완성해가는 것과 비슷하다.

거듭나긴 했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다.

여전히 유아틱한 영혼도 있고, 성장하여 장성한 영혼도 있다. 영적인 재능이 있는 영혼도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영혼도 있다.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고차원적인 영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영적 감각이 뛰어나게 발달한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자기만 볼 수 있는 환상을 본다든지, 신령한 꿈을 꾀다든지, 그 꿈을 해석한다든지, 천사의 도움으로 병을 고친다든지 등이다.

-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의 발달이 더딘 걸까? 그것은 아직은 그정도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보이스포싱에 걸릴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

에 일종의 보호막인 셈이다.

- 영적인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종종 일어난다.
- 영혼이 살아났지만, 성장하지 못하거나, 훈련되지 않았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영적인 재능이 뛰어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뛰어나지는 못해도 영적인 감각마저 무감각해지는 것은 위험하다. 악에게 지거나, 유혹이나 시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감각을 꾸준히 유지하는 조건의 핵심이 정상적인 경건생활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성수다.

-영적인 감각을 조금씩이나마 성장시키는 것은 성경공부, 기도와 전도 등이 된다. 전도는 매우 효과적인 영적성장을 가져다 준다.

*스스로 영적인 감각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영적 장애를 지니고 있는셈이다. 장애가 고장은 아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영적인 기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시간이 더 걸린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여러차례 시도해야 한다든지 하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꼭 신앙생활에만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일과 관련해서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영적 감각이라 해서 꼭 천사를 보거나 환상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하나님은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기이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평범하게 보이지만, 훨씬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행동,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 원하신다.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일들이 많다. 특히 위급한 경우에 더 그렇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일에 임하다 보면 하나님은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보내 주신다.

*오늘 본문에 다윗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

다윗이 추수때가 되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야기다. 세 용사가 다윗을 찾아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용맹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당시에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었다.

-다윗은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고,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점령되어 있었다.

-다윗은 목마름이 극에 달하자, 누가 나를 위해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다 줄 수 있을까 하고 말하였다.

-내 짐작에 다윗은 누군가가 변장하고 우물물에 접근해서 물레물을 길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 용사는 이 기회가 자신들의 용맹을 과시할 찬스라 생각했다.

-그들은 탱크처럼 내리 달려가서 적들과 거나하게 한판 싸우고 적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결국 물을 떠 왔다.

-다윗은 어안이 병병하였다. 고작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죽게 되었다? 내 병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목마름을 해소하면 된다?

-다윗은 생명의 귀중함보다 목마름에 애타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 정도로 정신나간 사람은 아닌 것이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다. 무엇이 중한지 아는 사람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졌고, 다윗은 부하들이 내민 물을 마셔야 한다.

-다윗은 이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현장에 있는 모든 군사는 목이마르다. 다윗만이 아니다.

-그러나 물은 한바가지만 있다.

-그래서 다윗은 물을 여호와께 바쳤다. 그 표시로 그냥 땅에 쏟았다.

-다윗은 용맹스런 부하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원했다.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갔던 부하들의 피입니다.

-내가 어찌 이 부하들의 피 같은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물을 마신들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았다.

-수 많은 부하 군인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았다.

-용맹스럽게 목숨을 걸고 물을 구하러 간 부하들도 부끄럽지 않게 하였다.

-온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혼자 독식하며 배부른 김정은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다윗은 성경에서 나의 영혼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 앞에 위치해 있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는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다.

*다윗과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찬양예배>

제목 : 영혼에 관한 자의식

성경: 시편 143편

Tag:

1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2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3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4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5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6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니이다 (셀라)

7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니이다

8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9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10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11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시143:1-12)

*영적인 사람이란 성령의 사람.

*영혼은 성령에 의해서만 살아난다. or 깨어난다.

*귀신이 죽은 영혼을 자기 포로 삼기 위해서 신내림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 영혼을 점령한다. 그 영혼이 깨어난 것이 아니라, 종노릇을 하게 된다. (빌립보의 점치는 귀신들린 여인, 거짓의 영, 마귀가 영을 사로잡고 종 삼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자유의 영이시다.

-강권하시는 것도 오직 성령의 자유의지시다. 그런데 성령의 강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음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므로, 스스로의 영혼에 대한 자의식이 클 수 있다. (특별한 경험이나 방법에 영성이 발목 잡힐 수 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깨어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혼에 대한 자의식이 작을 수 있으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성령의 본 성품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다.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사람의 독창성이 훼손되어서는 않된다.

하나님은 집단주의를 원치 않으신다.

팬덤정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그러면 강권적 역사가 더 좋은가? 그 사람에게는 그 방법이 가장 선한 것. (성령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 제비뽑기가 아닌,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성령)

-간증이란 표준이 되기도 하고, 따라쟁이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성령받음에 대한 자기 주도권을 쥐고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성령의 한계가 아닌, 사람 각자의 캐릭터에 의해서 일정한 한계나 구획이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나, 오직 성령의 자의적 역사에 따라 그 한계나 구획은 변할 수 있다.

*성령은 임의의 영이다. (자유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합리적이며, 질서가 있고, 선하시며, 창조적이며, 지혜와 지식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대화한다.

*1절.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인자가 많으시며, 지혜로우시다.

2. 주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성령을 받지만, 여전히 자신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므로 더욱 겸손해야 한다. 물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3.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4. 억지로 긍정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진술하는 다윗. 과장하지 않음. 진실함.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묘사함. 긍정의 신학과 결이 다름.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있어야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해짐.

5.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함.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다윗.

6. 주께 부르짖는 다윗

7. 두려움을 호소하는 다윗. 두려움에 맞서는 다윗, 두려움에게 싸움을 거는 다윗.

8. 지혜를 갈망하는 다윗. 도움을 갈망하는 다윗.

10. 공평에 대한 감각. 나만 특별한 대접 받기를 부담스러워 함. 부당한 이득을 거부함. 더러운 승리를 거부함. 남의 것을 탈취하기를 거부함.

11.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은 평상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함. 마땅한 요구. 주의 이름이 영화로워져야 한다는 간절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